

‘민간보조금 삭감’ 논란 감사위로

도의회 행자위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 의결
“예산담당관 공문 조례 위반… 재발 방지 위해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출 절감을 위해 민간보조금을 일괄 삭감하면서 불거진 ‘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3일 제38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중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도지사가 동의해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제주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7조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앞세운 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는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의결 후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도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회에서 신규(중액) 편성된 사업 일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공지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이

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행자위는 이날 도지사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의 예산결정에 관한 ‘자기결정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7조의 조항 준수를 요청하면서, 예산담당관의 관련 공문은 조례 위반인만큼 도지사가 동의한 예산안이 의회 의결 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회부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민간보조금이 삭감 배치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필요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제7조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물메’ 초당옥수수 수확 3일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의 한 밭에서 농민이 ‘물메’ 초당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림읍 금능리 어촌테마마을 거듭난다

해수부 어촌개발사업에 선정
내년부터 5년간 96억원 투입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가 마을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어촌 특화자원을 연계해 어촌테마마을로 조성된다.

제주시는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금능리가 선정돼 2021년부터 5년간 96억원(국비 67억, 도비 29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제주만의 지역특색을 가미한 어촌테마마을을 조성, 어촌의 자연·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어촌관광수요 충족을 통한 소득 증대도 모색하게 된다.

금능리는 마을의 문화공간인 ‘꿈차롱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2018년 농림부 주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해수부 공모사업도 마을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어촌의 특

화자원과 연계해 제주만의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5년동안 진행될 사업을 통해 창작의 광장, 문화예술광장, 예술문화센터 조성, 꿈차롱도서관 증축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수욕장 캠핑공원 조성, 꿈차롱 올레길 조성 등 어촌관광 수요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경관디자인 등에 심혈을 기울여 금능리가 제주의 대표적인 명품 어촌마을로 거듭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시멘트 공급 중단 사태 장기화 불가피

BCT노조·업계 3차협상 결렬

지난달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갈등을 빚고 있는 벌크시멘트트레이러(BCT) 노조와 시멘트업계가 제주도의 중재로 열린 3차 교섭에서도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주 지역 시멘트 공급 중단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CT 노조와 시멘트 업체는 지난 2일 제주건설화판에서 3차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측은 “최저 운임제 도입 이전 BCT 차량이 한차례 시멘트를 운반하면 11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금은 7만원에 불과하다. 운전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운임 인상으로 최저 9만원은 보장해야 한다”며 운송운임 인상을 요구했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저 운임 12%를 인상하되 노조가 요구한 실질운임 인상을 55%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시멘트협회는 “3차 협의에서

육지대비 비싼 물가와 도내 운송 환경을 반영해 안전운임 12% 인상을 통보했다”며 “인상된 운송운임은 파업 복귀 시점부터 적용해 바로 지급 하겠다”고 말했다. BCT노조는 “시멘트 업체는 노조에서 제시하는 근거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시멘트업체의 일방적인 기준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시멘트업계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성실 교섭의 출발점조차 지키지 않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CCTV에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등 3000여대
도 “신속하게 위기상황 대응”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적용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생활안전 사각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주도민과 어린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3000여대의 CCTV에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 사람·차량 등 관제대상에 따라 움직이며 CCTV영상을 선별 표출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육안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관제요원들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생활안전사각지대 방범용 CCTV 1000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된 초등학교

CCTV 1000여 대에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을 적용해 운영해왔다.

도는 향후 제주CCTV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CCTV에 대해서도 스마트 선별관제를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매년 CCTV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이벤트 분석 시스템인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상 징후가 있는 상황을 감지해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단 시범 운영

12월말까지 6개 분야 점검
도 “안전사고 예방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안전진단 전문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소규모 재난취약시설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자유업종 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질라인(하강시설) ▷레일바이크 ▷카트체험 ▷출렁다

리 ▷기계식주차장 ▷소규모 시설물 등 6개 분야로, 점검은 올해 12월말까지 이뤄진다.

각 분야별 사업장 중 2~16개 곳을 표본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되며, 점검결과 사고위험 인지 및 주요 사고유형 등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단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성과를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경우 점검분야 및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농업인 기초 영농 교육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가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교육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3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영농 초보자들이 쉽고 빠르게 재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동부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감귤류, 근채류, 인경채소류 및 제주형 스마트팜 기초교육으로 편성·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이뤄지며, 신청자격은 교육을 희망하는 동부지역 신규 농업인과 초보 영농인이다.

신청은 전화(760-7622)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30명이다.

백금탁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앵무목, 천혜향, 왕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랑향,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회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